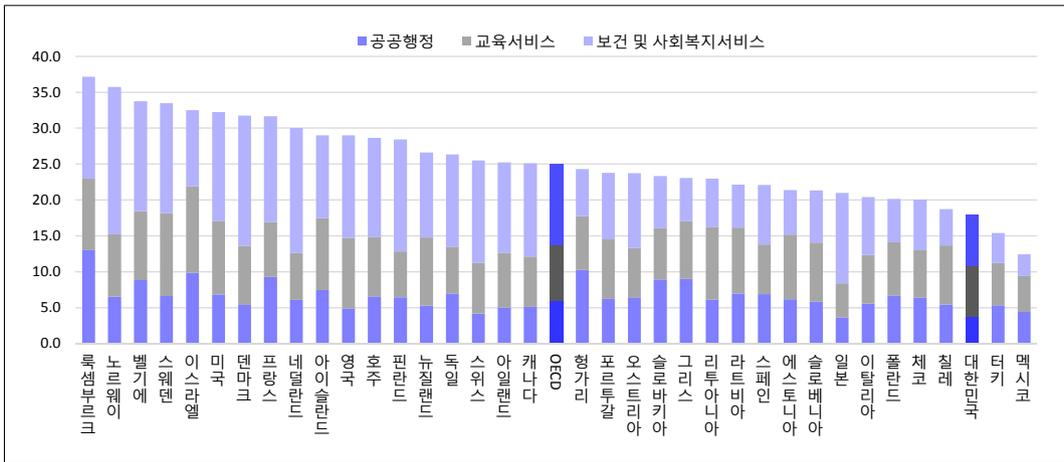


OECD 회원국의 공공 및 사회서비스업 취업자 비중 비교

- 국제노동기구(ILO)¹⁾의 자료에 따르면, 우리나라의 공공 및 사회서비스업²⁾ 취업자 비중(2016년 17.9%, 2017년 18.3%)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낮은 국가군에 머물러 있음.
 - 먼저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 행정서비스업 취업자 비중(2016년)을 보면, 우리나라는 3.8%로 2000년 이후 3%대 중후반에서 횡보하고 있으며, OECD 회원국 평균(6.0%)보다 낮아 일본(3.7%)과 함께 가장 낮은 국가군에 속함(그림 2 참조).

[그림 1] OECD 국가별 공공 및 사회서비스업 취업자 비중(2016년)

(단위 : %)



주 : 1) ILO 조사대상국(189개국) 중 OECD 회원국(36개국)만을 대상으로 재구성함.
 2) (산업별 취업자 수/전체 취업자 수)×100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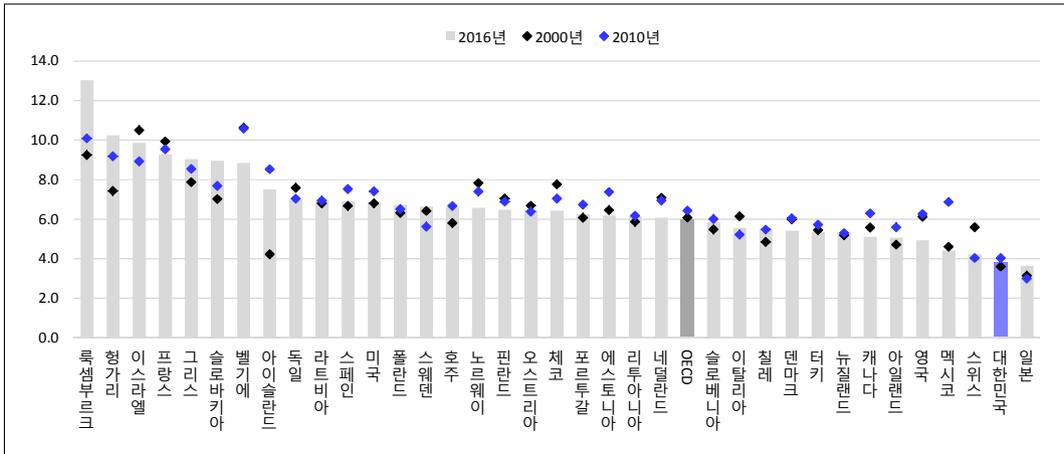
자료 : ILO modelled estimates, ILOSTAT.

- 1) 국제노동기구(ILO)는 1991~2016년까지 189개 국가의 노동시장 자료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해당하는 자료(Labor Force Survey)를 취합하여 국제표준산업분류(ISIC)를 기준으로 전체 취업자 대비 산업별 취업자 규모를 국가별로 비교하고 있으며, 국가/연도별로 누락된 값에 대해서는 자체분석모형(ILO model)을 통해 추정하여 제공함(2018년 5월).
- 2) 공공 및 사회서비스업은 교육, 사회보험, 보건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서비스를 의미하며, ISIC 기준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 행정서비스업(O), 교육서비스업(P)과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(Q)을 의미함.

– 우리나라의 교육서비스업 취업자 비중(2016년)은 7.1%로 스위스(7.0%)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OECD 회원국 평균(7.7%)³⁾보다 낮음(그림 3 참조).

[그림 2] OECD 회원국의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 행정서비스업 관련 취업자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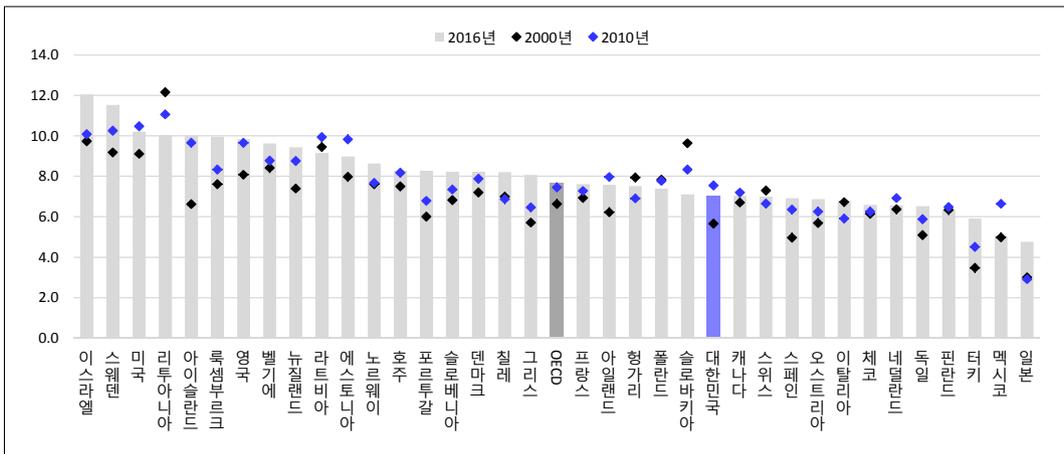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주 : 1) ILO 조사대상국(189개국) 중 OECD 회원국(36개국)만을 대상으로 재구성함.
 2) (공공행정 및 사회보장 행정서비스업 취업자 수/전체 취업자 수)×100
 자료 : ILO modelled estimates, ILOSTAT.

[그림 3] OECD 회원국의 교육 서비스업 관련 취업자 비중

(단위 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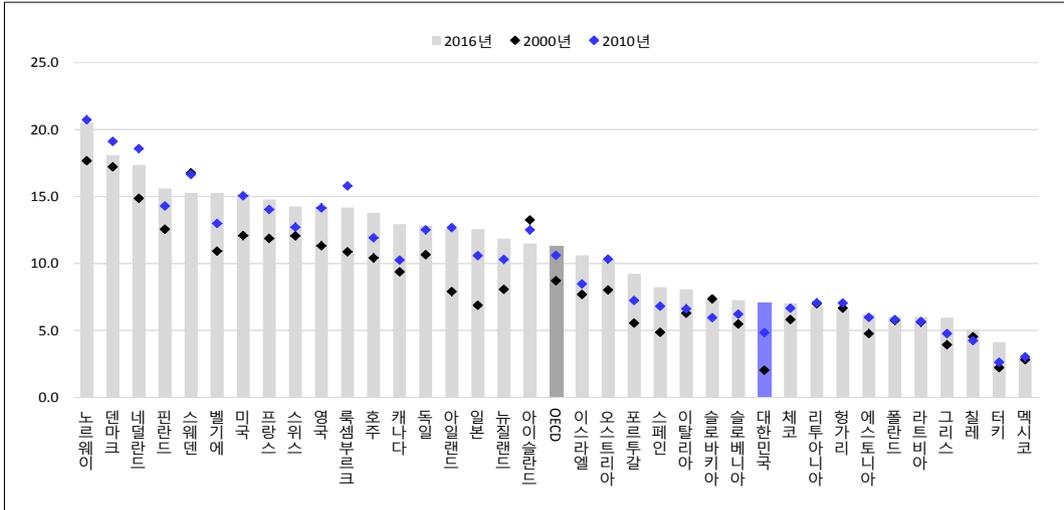
주 : 1) ILO 조사대상국(189개국) 중 OECD 회원국(36개국)만을 대상으로 재구성함.
 2) (교육 서비스업 취업자 수/전체 취업자 수)×100
 자료 : ILO modelled estimates, ILOSTAT.

3) OECD 회원국의 전체 취업자 수 대비 교육서비스업 취업자 수로 계산하였음.

- 우리나라의 교육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은 2009년 7.8%까지 상승하다가 2010년 7.5%로 소폭 둔화하면서 최근에는 7.0~7.1%에서 움직이고 있는 반면, 독일과 체코의 경우 2010년 대비 각각 0.6%p, 0.3%p 상승하면서 교육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.

[그림 4] OECD 회원국의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관련 취업자 비중

(단위 : %)



주 : 1) ILO 조사대상국(189개국) 중 OECD 회원국(36개국)만을 대상으로 재구성함.
 2) (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수/전체 취업자 수)×100.

자료 : ILO modelled estimates, ILOSTAT.

- 우리나라의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비중(2016년)은 7.1%로 2000년 2.0%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OECD 회원국 평균(11.3%)보다 낮은 국가군에 속함. 호주, 캐나다, 일본, 스페인 등도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(그림 4 참조).
- ILO의 2017~2022년까지의 노동시장 전망⁴⁾을 보면, 2022년 공공 및 사회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은 2016년과 비교해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.
 - 우리나라의 경우, 2022년 공공 및 사회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은 18.3%로 현재(2016년 17.9%)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으며, 이는 OECD 회원국 평균(25.2%)과 큰 격차를 보임.⁵⁾ 특히 공공 및 사회서비스업 중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전망치 격차

4) ILO에서는 1991년~2016년까지의 노동시장 자료를 이용하여 2017년~2022년까지 단기간 전망을 하고 있음. 전망치는 ARIMA, VARX 등 다양한 시계열 모형들을 활용하여 예측한 뒤에 가장 설명력이 좋은 5개 모형의 결과를 평균한 값임.

(4.3%p)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. **KLI**

〈표 1〉 산업별 취업자 비중 변화(2010년, 2016년) 및 전망(2022년)

(단위 : %)

	ISIC (ver.4)	한국			OECD(36개 국가)			전체(189개 국가)		
		2010	2016	2022	2010	2016	2022	2010	2016	2022
농림어업	A	6.6	4.9	4.5	5.2	4.7	4.4	30.8	26.7	24.2
광업	B	0.1	0.1	0.1	0.4	0.4	0.4	0.6	0.6	0.7
제조업	C	16.9	17.1	15.9	14.1	14.0	13.5	14.5	13.2	12.2
전기·가스 및 수도	D,E	0.6	0.7	0.7	1.1	1.1	1.1	0.6	0.8	0.8
건설업	F	7.4	7.0	7.0	7.4	7.2	7.1	7.2	7.9	8.3
도·소매업	G	15.0	14.2	13.8	14.4	14.4	14.1	13.7	14.8	15.4
운수·창고 및 정보통신업	H,J	8.2	8.4	8.4	7.2	7.4	7.4	4.9	5.5	6.1
숙박 및 음식점업	I	7.9	8.7	8.6	5.2	5.9	6.1	2.8	3.5	4.0
금융 및 보험업	K	3.4	3.0	3.0	2.9	3.0	2.9	1.7	2.0	2.1
부동산, 전문·과학·기술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	L,M,N	10.2	11.3	13.0	10.5	10.4	11.2	3.6	4.3	5.3
공공 및 사회서비스업(O+P+Q)		16.4	17.9	18.3	24.5	25.0	25.2	14.6	15.4	15.5
공공행정 및 사회보장 행정	O	4.0	3.8	3.9	6.4	6.0	6.0	4.3	4.2	4.2
교육서비스업	P	7.5	7.1	7.1	7.4	7.7	7.7	6.4	6.9	6.8
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	Q	4.8	7.1	7.3	10.6	11.3	11.6	3.9	4.4	4.6
기타 서비스업	R,S,T,U	7.4	6.7	6.7	7.0	6.5	6.5	5.0	5.2	5.3

주 : (산업별 취업자 수/전체 취업자 수)×100.

자료 : ILO modelled estimates, ILOSTAT.

(임용빈, 동향분석실 연구원)

5) 이외에도 산업별 취업자 비중을 전망하고 있으며, 우리나라의 제조업과 도·소매업의 취업자 비중이 세계적 추세에 따라 낮아지고 부동산, 전문·과학·기술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의 취업자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.